

보건사회연구원 '노인단독가구 생활현황' 보고서

농촌노인, 일은 많고 소득은 적고 안전사고 취약



65세이상 경제활동 참가 33.3%... 도시보다 13% 높아
평균 월 소득은 60만원으로 도시노인보다 15만원 적어
안전사고 도시의 2배...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 6% 낮아

농촌 지역 노인들이 도시 노인들보다 일은 많이 하지만 소득은 적고 안전사고에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3.3%로 도시 독거노인

(20.6%)보다 경제활동이 활발하지만, 평균 월 소득은 60만원으로 도시독거노인 가구의 75만 2000원보다 15만원가량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어 고령에도 농사를 계속 짓지만 각종 연금혜택을 받는 도시 노인들에 비해 소득은 더 떨어지는 것이다.

'원하는 노후 생활의 모습이 무엇이나'는 질

문에 노후에도 '소득 창출'에 열중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농어촌 부부가구가 38.4%로 도시(19.2%)보다 두배 높았다. 반면 '건강 유지'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도시가 50.8%로 농어촌(42.7%)보다 더 많았다.

고령에도 고된 농작업을 계속하는 만큼 안전사고를 경험한 비율도 농어촌이 더 높았다. 도시 노인 부부가구의 3.3%가 안전사고를 겪은 반면 농어촌은 두배 많은 6.0%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비율은 농어촌이 오히려 더 낮았다. 도시 독거노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률이 17.8%인 반면 농어촌 가구는 보호율이 11.1%에 그쳤다.

정경희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 문제는 생존과 생활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문제 발생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제도와 같은 소득보장정책에 서는 독거노인 가구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독거노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 중요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말 현재 농어촌(읍·면 지역)의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23.9%로 도시(동지역)의 17.6%에 비해 두 배나 높았으며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국 김 시장 공략

수협중앙회, 중국식 이름 '해다진' 출시

수협중앙회가 중국 김 시장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수출용 김·다시마 브랜드인 '해다진(海多珍)'을 출시한다. 해다진은 바다의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이란 뜻을 담은 중국식 이름으로 그 나라 정서에 맞게 명칭을 현지화했다.

수협은 바다(海)찬, 수협김 등의 국산 수산물이 중국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면서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공식 브랜드로 해다진을 내놨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해관에 따르면 중국 김 소비량은 2009년 8882t에서 2013년 1만 3244t으로 149% 상승했다. 같은 기간동안 수입은 46t에서 215t으로 213% 증가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아진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가까운 한국이나 일본 등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식 표시가 아닌 제품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는 대다수 기업들은 중국식 명칭으로 바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제과품인 초코파이가 제품명을 '하오리여우(好麗友)'란 중국식 이름으로 바꿔 현지화 해 중국시장내 파워브랜드로 자리잡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200개가 넘는 13억 중국을 상대로 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얼굴인 브랜드를 현지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새로운 포장디자인과 새로운 네이밍으로 중국은 물론 아시아 및 중화권에 수협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디자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다진은 1차 상표등록이 완료돼 이르면 내달부터 중국 수출용 김·다시마 제품이 브랜드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쌀 수출 자유화... 장관추천제 폐지

정부가 쌀 수출시 장관 추천을 받도록 한 절차를 없애, 누구나 쌀 수출이 가능토록 한다. 쌀 관세화 등 개방화 추세에 맞춰 수출도 자유롭게 가능토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출추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인 '미국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도 폐지한다.

그간 쌀 수출업체는 농식품부 장관의 수출추천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했다. '미국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 고시에 따라 수출 물량 및 가격이 제한됐고, 수출 후에는 수출이행 실적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만 했다. 이 같은 절차상의 불편함 때문에, 쌀 수출량은

미국과 호주 등 교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2013년 1754톤, 2014년 1992톤에 불과했다. 수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쌀 수출 확대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18일 쌀 관세화 추진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9월18일에는 관세율 513%를 발표했다. 이후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령 수정 절차를 거쳐 지난 1월1일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한 바 있다. 이외에도 최근 쌀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용 벼 재배단지 조성, 국산 쌀 비용절감을 위한 조직화·규모화 정책을 펴고 있다.

해외 쌀 시장조사, 상품화 지원사업, 농가·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국산 쌀 수출 핸드북' 발간 등도 추진한다. /김대성기자 bigkim@

사료 허위·과장 표시행위 집중 단속

농식품부, 올 12월31일까지

정부가 사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및 과장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사료검사계획'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사료가 유통되는 전국 대형마트, 동물병원, 제조공장 등을 중심으로 사료 표시사항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약품이나 질병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 사료관리법에 따른 12가지 의무표시사항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2가지 의무표시사항은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및 형태 ▲등록성분량 ▲사용한 원료의 명칭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주의사항 ▲사료의 용도 ▲실제중량(kg 또는 t)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전화번호 ▲재포장 내용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다.

농식품부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과장해 표시한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등록취소 또는 6개월내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은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선연하고 나선 위로 종주국으로 개의 한 책방이 자리 잡고 있 로서 위상을 높여온 책의 왕국 는 이 헤이은와이는 세계 최초 온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의 책 마을로 명성을 얻게 됐 되었다. 헤이은와이는 마을 주 다. 1962년에 리처드 부스의 민 모두가 사립 주인이다.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가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은와이를 얘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